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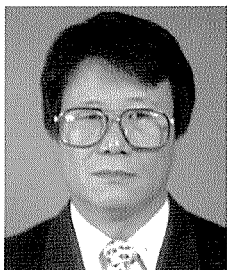
안양지부, 「사랑의 빵만들기」 행사 아동복지관 어린이 대상 온정의 손길

안양지부(지부장 이범진)가 지난해말 안양아동복지관을 대상으로 '사랑의 빵만들기' 자선 행사를 개최, 업계에 훈훈한 온정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안양시 만안구청장을 비롯한 안양지부 임원진들과 각 해당 지역장 및 11개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포함 총 20여명이 참석, 약 100여명의 고아 아동들에게 사랑의 빵을 간식으로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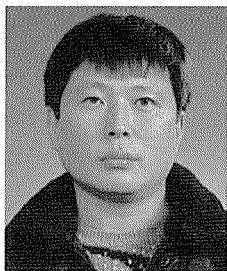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안양지부 자원봉사자들이 빵을 현장에서 직접 제조, 아동들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느끼도록 해주었으며 지부회원들의 보람과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알찬 시간이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이범진 지부장은 "이러한 따뜻한 사랑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21일 제빵시설을 복지관 내에 설치, 향후 적성에 맞는 아동을 발굴해 제빵 기술자로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철 포항지부장

포항지부장에 박영철 씨

포항지부는 지난해말 지부 사무실에서 3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총회를 열고 태극당의 박영철씨를 신임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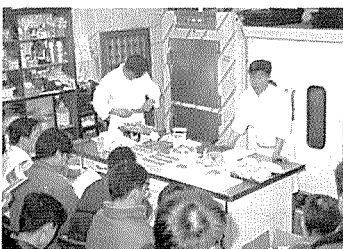
이창화 제주지부장

제주지부장에 이창화 씨

제주지부는 지난해 12월 10일 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총회를 열고 신임지부장에 「아줌마제과」의 이창화씨를 선출했다.

김해, 크리스마스 케이크 세미나 실시

김해지부(지부장 손철배)는 지난해 12월 6일 회원 업소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대비 신제품 기술세미나를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회원 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쇼트케이크, 키위 쇼트케이크, 스위트 브레드 등이 선보여 회원

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대전지회, 매일유업 평택 공장 견학

대전지회(지회장 윤주경) 회원 60여명은 지난해 12월 3일 경기도 평택 소재 매일유업을 방문해 견학을 실시했다.

이날 방문에서 대전지회는 시유와 분유의 제조 공정을 견학하고 생크림, 휘핑크림의 원리 교육과 피자 치즈 등의 시식을 실시했다. <대전주재 기자 원귀식>

울산지부 사무실 이전에 회원 단합 과시 회원 70% 참여, 조직 활성화 기틀 마련

울산지부가 사무실 이전에 회원의 응집된 역량을 과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지부는 지난해 회원 및 관련 업계 인사가 참가한 가운데 신정 3동에 40평 규모의 사무실을 마련, 현판식을 갖고 확장 이전했다. 이번 사무실은 사무공간 이외에 25평 규모의 세미나 시설을 갖추고 있어 울산 지역 기술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해 울산지부는 안강운, 김정덕, 황일하, 백금석씨 등이 주축이 된 지부 이전 건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사무실 이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이

전 소요 예산 5,200만원 중 기본 자산 1,930만원 외에 부족한 3,000여만원의 조달을 위해 이 사진 및 역대 고문이 각각 1,000만원씩을, 회원 업소 기부금으로 1,000만원의 목표를 세웠다.



▲ 사무실 이전의 견인차를 담당한 백금석, 안강운, 김정덕, 황일하 이전 추진 위원들 (사진 왼쪽부터)

이를 위해 지부 집행부, 역대 임원, 관련 업체의 협조와 250여 회원 업소를 방문하는 등 사무실 이전 사업을 추

진한 결과 70%의 회원이 참여하는 적극적인 호응에 힘입어 역사적인 사무실 이전을 성취하게 되었다. 울산지부는 이번 사무실 이전에서 나타난 회원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광역시 승격에 대비한 활발한 조직 운영과 실속있는 세미나 개최, 신규업주 교육 등의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